

### 불교 미래경영과 신행체제를 논하다

불광연구(전법학 연구) 9호 발간

전법과 교화의 학술적 지평을 열고 실사구시의 불교학 정립을 위해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이 발간하는 학술지 <전법학 연구> 9호가 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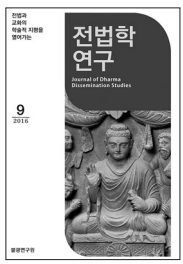
이번 <전법학 연구>는 제4회 전법 학술상 수상논문 3편과 '불교의 신행체제와 재가불자의 신행론'을 주제로 한 논문 4편, '불교와 미래경영'을 주제로 한 논문이 4편 등 전법 관련 논문 11편이 수록됐다.

4회째를 맞는 전법학술상 수상 논문으로는 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전법학 정립을 위한 연구방법론 모색'과 손석준 건국대 교수의 '전법교화의 패러다임 전환과 계인', 김경집(진각대) 교수의 '일제하 30본산의 평양 포교' 등이다.

두 번째 특집인 '불교의 신행체제와 재가불자의 신행론'은 대승불교와 중국선종의 전통은 물론 남방불교와 티베트불교 나아가 서양불교까지 공존하는 이른바 다불교(多佛敎) 상황 속의 한국불교가 취해야 하는 바람직한 신행론을 모색하고 있다.

세 번째 특집은 '불교와 미래경영'을 다루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열린 학술연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수록된 것으로 경영과 불교의 만남을 다루고 있다.

신성민 기자



# 백용성 스님 업적 조명한 총서 발간 '눈앞'

동국대 불교학술원·대각회, 10월 총서 출간 예정

3.1 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이자 불교 근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선지식인 백용성 스님(1864~1940)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총서가 올해 10월 발간된다. 또한 내년 8월에는 총서의 전문을 온라인을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근대 고승에 대한 전면적인 총서 발간과 온라인 DB화 작업은 유례가 없는 일로, 사업이 완료되면 용성 스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 연구소와 대각회는 2013년 2월부터 <백용성 대종 총서> 발간 및 전산화 사업에 착수했다.

근대 한국불교의 전통을 확립한 불교계 대표 고승인 백용성 스님의 사상과 유훈을 계승·진작하기 위해 진행된 총서 발간사업은 현재 4년째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지난해까지 자료 조사와 촬영 등은 대략 마무리됐으며, 총서 발간을 위한 출판 계약도 동국대 출판부와 마친 상황이다.

백용성 스님의 전집은 대각회에서 1991년 한 차례 발간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료를 영인(影印, 인쇄물의 원본을 사진으로 복사해 인쇄하는 일)하

는 데 그쳤고, 자료의 오류도 일부 있어 정확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동국대와 대각회가 새로이 발간하는 <백용성 대종사 총서>는 스님의 저서와 사진부터 신발굴 자료까지 총망라했으며, 현대어로 해석해 활용도를 높였다.

저서·신발굴 자료 총망라

현대어로 해석, 20책 묶어내

2013년 시작... 4년 걸친 불사

내년 DB화 작업으로 마무리

근대 고승 총서 유례없는 일

기초 연구 자료로 가치 높아

총 20책에 달하는 총서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1그룹 8책은 스님의 저서와 발굴 자료를 현대어로 해석한 것이며, 2그룹 12책은 이를 영인한 것들이다.

또한 저서를 분류해 부분별로 묶었다. 1그룹의 1책은 선사상을 주제로 <용성선



백용성 스님 진영. 대각사 소장본이다. 총서에는 10여 종의 진영이 모두 실린다.

사 어록, <귀원정종>, <청공원일>, <수심론>이 포함됐다. 2책은 대각사상을 주제로 <선문활요>, <삼조만유론>, <각해일론>, <임종결>, <대각교 의식>, <석가사>, <불문입교문답>, <오도의 진리>, <오도는 각>, <대각교중앙본부 도서목록>이 묶였다.

3, 4책은 대승사상 I·II로 <범광경 심지품 연의>, <각설 범광경>, <신역 대장경 금강경 강의>, <신역 대장 금강마하아비라밀경>, <상역과해 금강경>, <수능엄경 선한연의>, <조선어 능엄경>, <천

<백용성 대종사 총서> 1그룹 예정 목록

총서	주제	문헌명
1책	선사상	<용성선사 어록>, <귀원정종>, <청공원일>, <수심론>
2책	대각사상	<선문활요>, <삼조만유론>, <각해일론>, <임종결>, <대각교 의식>, <석가사>, <불문입교문답>, <오도의 진리>, <오도는 각>, <대각교중앙본부 도서목록>
3책	대승사상 I	<범광경 심지품 연의>, <각설 범광경>, <신역 대장경 금강경 강의>, <신역 대장 금강마하아비라밀경>, <상역과해 금강경>
4책	대승사상 II	<수능엄경 선한연의>, <조선어 능엄경>, <수능엄경 신주활요>, <금비라밀동지위덕경>, <팔상록>, <각정심관음경사 총지경>, <대방광원각경>, <대자사신론>, <육자영감대명왕경>, <천수경>, <지장보살본원경>
5책	조선글 화엄경	
6책	조선글 화엄경	
7책	신발굴자료	
8책	총목자 및 색인	

\*총서 1그룹은 8책으로 원본 해석 등을 담았다. 2그룹은 12책으로 이에 대한 영인이다. 분류 주제도 동일하다.

수경, <지장보살본원경> 등이 담겼다. 5, 6책은 <조선글 화엄경>이, 7책은 신발굴자료, 8책은 총목자 및 색인으로 이뤄진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새롭게 발굴된 자료인 7책 신발굴자료이다. 약 400건이 새롭게 발굴됐고, 해설을 포함 1000페이지 분량으로 정리됐다. 이중 백용성 스님의 제자 변일주 스님의 관련 문서가 흥미롭다. 백용성 스님이 친필로 작성한 1938년 해인사금강계단의 계첩인 '불계 율연원'은 한국불교의 계율 전승의 전통

확립과 그 맥을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조선불교선종총림 화과원, 해인사, 마하연 등에서 변일주 스님이 수행한 안거중도 근대 불교의 수행 문화를 알 수 있게 하는 사료다.

이번 총서 발간 사업의 중요한 성과는 DB화를 통해 모든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전자불전문화콘텐츠 연구소는 내년 8월까지 DB화를 완료하고 '불교문화기록유산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자료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주도한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는 "만해 스님의 전집은 1972년에 발간됐지만 백용성 스님의 전집이나 총서는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중요한 근대 선지식인 용성 스님에 대한 양질의 총서가 필요했다"면서 "‘용성’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모두 모았다. 이번 총서는 용성 스님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수 불교학술원 ABC사업단 DB팀장은 "이번 사업은 현 총장 보광 스님이 이끈 대각사상연구원과 근대사 연구자 김광식 교수의 학문적 인프라, 대학교, 불교계가 서로의 역량을 최대한 협력해 이뤄낸 것"이라며 "불교학술원이 불교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문화재 보존·가치 확산 정책 집중”

문화재청, 1월 26일 신년 계획 발표

올해 목표 '국민공감' 설정

국외문화재 환수 추진 지속

문화재청이 올해 문화재의 적극적 보존과 선진적 문화재 정책 구현, 문화유산의 세계화 등을 통한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월 26일 발표한 올해 사업계획을 통해 "문화유산 가치 증진 및 국민공감 확산, 문화유산 전승 및 관리 강화, 정책품질 향상 및 국민참여 확대, 세계유산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불교계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문화유산 전승 및 관리 강화' 부분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 상시점검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56건)에

대한 모니터링·환류시스템을 강화하고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해 현장관리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실적을 반영한 인센티브(포상)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부터 국보 등 야외에 노출된 건조물문화재의 정기조사 범주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구축(국보·보물 목조문화재 27건), 문화재 재난안전 빅데이터 분석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문화재 재난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방침이다.

그리고 3월부터 시행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진다. 유네스코 기준에 맞추어 확대되는 무형문화재 범주(2~7개 분야)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재분류하고 지정기

준을 정비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3개 분과)도 새롭게 구성한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5개년, 2017~2021년)'에 정책방향의 큰 줄기를 담을 계획이다.

또한, 향후 5년간 문화재 정책의 방향타가 될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발전역량을 다질 계획도 갖고 있다.

'세계유산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서도 국외문화재 환수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문화재청은 "국외소재 문화재 심층 실태조사(최대 7000여 점) 및 출처조사 확대(일본·미국·유럽), 외국경매소(220여 개소) 모니터링 강화 등 국외소재 문화재의 종합적인 조사·연구와 협조체계를 토대로 우호적인 문화재 환수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경주 인왕동 사지 '사적' 승격된다

문화재청 28일 지정

경북 문화재 자료였던 경주 인왕사지가 국가 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북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경주 인왕사지(慶州 仁王寺址,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40호)'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3호 '경주 인왕동 사지(慶州 仁旺洞 寺址)'로 지정한다"고 1월 28일 밝혔다.

경주 인왕동 사지는 신라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 김인문의 원찰(願刹)인 인왕사(仁容寺) 터로 추정되어 1991년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경주 인왕사지'로 지정되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인왕동 사지는 중문·쌍탑·금당·강당·회랑을 기본으로 하는 신라의 전형적 가람배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른 신라 사찰과 비교되는 독특한 건축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사적으로 승격된 경주 인왕동 사지 전경.

중문 자리에는 유례가 드문 '아(亞)'자형 건물지가 있고, 쌍탑은 여느 사찰과 달리 금당의 좌우 측면 남북축선 안쪽에 위치한다.

또한, 백제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와축기단(瓦築基壇, 기와를 쌓아 만든 기단)을 구축했다.

문화재청은 "향후 경상북도, 경주시 등과 협력하여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경주 인왕동 사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출강 및 통신 2016학년도 제 25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 불교 법사 신입생 모집

뛰어난 불교교육과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 25년의 법사 교육에 전통과 신뢰는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에 또 하나의 자랑과 긍지입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범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포수 후 사찰·포교원 등로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1년) · 대법사과정 (2년) · 불학연구원과정 (5년) · 불교석학과정 (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2016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건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02)733-1959  
720-1836

## 대한불교원효종 총회의원 보궐 선거 공고

① 교구별 총회의원 배정  
 경북 1 / 전남광주 2 / 제주 1 / 대전충남 2 / 울산 1 / 전북 1 / 경북북부 1

② 교구 선거위원회 구성  
 ■ 2016. 2. 3 - 2016. 2. 18  
 교구 중추위원이 교구 선거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③ 총회의원 입후보 신고  
 ■ 2016. 2. 18 - 2016. 2. 26  
 ◇ 구비서류: 총회의원 입후보자는 중도의 각 교구소속별로 각기 5인 이상의 유권자 추천서와 승적증명이력서,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 당해 선거위원회에 입후보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원 전형(교구)  
 ■ 2016. 2. 26 - 2016. 3. 3

⑤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로의 전형결과 보고  
 각 교구선거 위원장은 선거결과를 각기 본인에게 통보하고 다음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본인이력서, 주민 등록 등본(반명함판 사진첨부)  
 ◇ 본인의 취임 승락서  
 ◇ 전형 조서  
 ■ 2016. 3. 7 까지

⑥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적부 판정  
 ■ 2016. 3. 12

⑦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의 당선확정 공고  
 ■ 2016. 3. 14

**대한불교 원효종 선거 관리 위원장 석 불**  
 선거관리위원: 춘명 정운 현수 무공  
 총무원: 경북 경주시 서리별 대로 322-10 전화 054)743-0700 / 팩스 054)741-9002